

중국의 독점금지법 강화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

- 중국정부는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가 카르텔 체결로 인한 가격인상이 중국의 독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고 총 200억 엔의 벌금을 부과
- 최근 중국에서는 독금법에 의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

□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 적발

- 중국정부는 ‘14.8.20 일본 자동차부품기업 10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명령

- 텐소, 미쓰비시전기, 야자키총업, 일본정공 등 10사는 가격 카르텔로 자동차부품 가격을 인상시킨 혐의로 총 200억 엔의 벌금을 부과

* 벌금액은 각 기업이 중국에서 판매한 해당제품 연간 매출액의 4~8%에 상당

- 중국정부는 적발된 일본기업들이 발전기, 케이블 하니스, 베어링 등 10년 이상 담합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
-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와 후지코시는 중국 당국이 8월초부터 실시한 조사에 협력적이었다는 이유로 벌금은 면제

<중국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일본기업>

| 기 업 명 | 벌금(억엔) |
|--------------|--------|
| 스미토모전기공업 | 48 |
| 야자키총업 | 40 |
| 일본정공 | 29 |
| 텐소 | 25 |
| NTN | 19 |
| 제이텍트 | 18 |
| 미쓰비시전기 | 7.5 |
| 미쓰바 | 6.8 |
| 후루카와전기공업 | 5.7 |
| 아이산공업 | 4.9 |
|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| 면제 |
| 후지코시 | 면제 |

□ 중국의 독금법 위반 단속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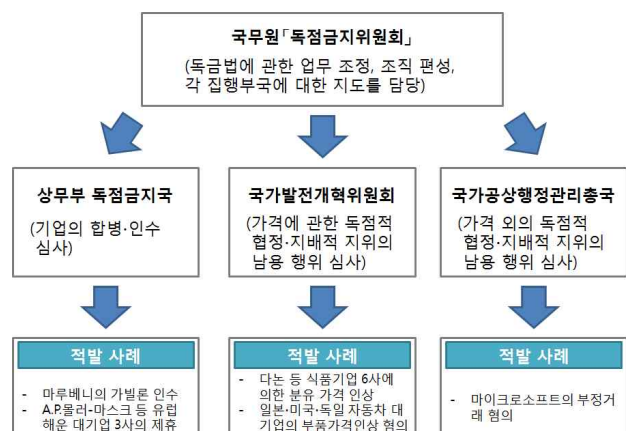
- 중국정부는 ‘08.8.1부터 독점금지법을 시행(‘07.8월 발효), WTO나 국제사회에 중국이 시장경제국가라는 것을 각인
- 독금법은 (1)카르텔 금지, (2)시장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금지, (3)기업 M&A의 사전 심사, (4)행정 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 배제의 제한 등 4 가지 요소로 구성

- 중국정부는 ‘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계 대기업을 단속하기 시작
 - ‘13.1월에 삼성전자, LG전자 등 한국기업과 대만의 액정패널 기업이 가격 카르텔을 맺은 혐의로 적발 당했음
 - 닛케이신문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중국기업의 가격 카르텔을 중심으로 단속해 온 경향이 축적하여, 지금은 외국계 대기업을 심사할 수 있는 만큼 법의 운용에 익숙해졌다고 분석

<중국정부에 의한 외국기업 적발 사례>

| | | | |
|--------|---|-------|--|
| ‘13.1 | 삼성전자, LG전자 등 한국기업과 대만의 액정패널 기업 6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, 총 49억 엔의 벌금 부과 | ‘14.6 | A.P. 몰러-머스크(덴마크) 등 유럽 해운 기업 3사를 아시아-유럽 항로 세어의 금상승을 이유로 제휴를 불인정 |
| ‘13.4 | 마루베니의 미국 국물 대기업 인수로 지배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, 중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제한 | ‘14.7 | 도요타자동차와 중국현지 합작기업에 대해 하이브리드차용 전지의 사외 판매를 명령 |
| ‘13.8 | 다논(佛), 미드 존슨(美) 등 식품 대기업 6사의 지나친 분유 가격 인상을 적발, 총 106억 엔의 벌금 부과 | | 마이크로소프트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 |
| ‘13.11 | 미국 반도체 대기업 쉘컴을 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| ‘14.8 | 폭스바겐(獨), 크라이슬러(美), 도요타자동차, 닛산자동차, 혼다 등 자동차 대기업들을 보수용 부품 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|
| ‘14.2 | 쉘컴을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 | | 일본 부품기업 12사의 가격 카르텔을 적발, 총 200억 엔의 벌금 부과 |
| ‘14.4 | 마이크로소프트(美)의 노키아 인수로 지배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, 특허 남용 금지 등 조건 부여 | ‘14.9 | 아우디와 다임러(獨), 크라이슬러에 대해 가격 부정 인상을 적발, 총 54억 엔의 벌금 부과 |
| ‘14.5 | 니콘, 에실로(佛), 칼자이스(獨) 등 렌즈 기업 5사를 가격 인상으로 적발, 총 3억 2000만 엔의 벌금 부과 | | 일본 자동차 기업 1사를 부품가격 인상 혐의로 조사 |

- 중국의 독금법 관련 업무는 상무부,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기관이 담당
 - 최근 외국계 기업에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요하는 이유는 3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임
 -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보임



○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IT,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국산(중국산) 제품의 이용을 장려하는 「중국의 꿈」 전략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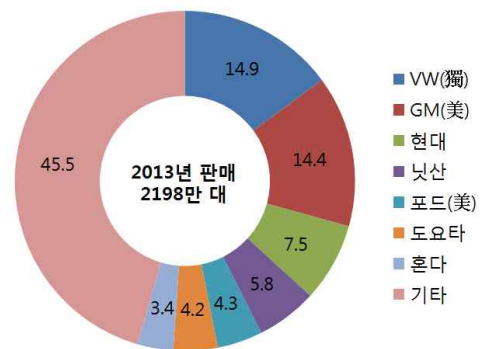
- 단속 대상 분야가 액정 패널이나 스마트폰용 반도체, 자동차 등 중국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의도적인 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음

* 중국 자동차시장의 50% 이상은 외국 자동차가 차지

- 이에 대해 중국EU상공회의소는 긴급성명을 발표, 자동차 관련 중국기업이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단속의 공평성을 비판

- 하지만 중국정부는 고급 외제차의 가격이 본국 제품보다 2~3배 비싸 상품 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통해 「소비시장의 정상화」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

중국 자동차 시장 기업별 판매 세어(2013, %)



자료 : 동양경제(2014.9.20)

□ 일본기업의 대응

○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본 자동차부품기업들에 대해 (1)중국의 법률에 따라 판매 정책과 판매 행위를 재검토, (2)전 직원에 독금법 관련 교육을 실시, (3)소비자의 이익에 공헌하는 행동을 취할 것 등 회사 체제의 재검토를 추진

- 모든 기업들이 내용 확인과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, ‘14년도 실적에 대한 영향과 코멘트, 반성문 등을 발표

-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은 부품 가격을 평균 20% 정도 인하하였지만 인하 대상 범위가 전체 부품의 수십 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성 자동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

* 도요타자동차는 렉서스용 부품 약 1만 5,000개의 가격을 평균 26% 인하하기로 결정

○ 중국 당국이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, 도요타자동차와 혼다는 즉시 부품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

- 중국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수리 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

- 신속한 부품 가격의 인하는 '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회피하려는 대응으로 보임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북미시장의 판매 강화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
 - 북미는 정치 리스크가 없고 '13년 미국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대비 4.6% 증가한 1560만대로 선진국에서 유일한 성장시장으로 부상
 - 북미시장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좋고 브랜드력도 높아, '14년에는 도요타 자동차나 닛산자동차의 판매가 대폭 증가할 전망
- '14.8월25일에는 인도에서도 독점금지당국이 국내외 자동차기업 14사에게 예비 부품의 판매 경쟁 방해 혐의로 총 440억 엔의 벌금을 부과
 - * 단속 기업 : 타타모터스(印), 힌두스탄모터스(印), 마힌드라앤마힌드라(印), 혼다, 멀티·스즈키·인디아, 닛산자동차, 도요타자동차, 폭스바겐, 스코다(VW 자회사), BMW(獨), 메르세데스-벤츠(獨), 피아트(伊), 포드, GM
- 신흥국 시장은 성장성이 높다는 매력도 있지만 현지 진출 기업은 법무 체제의 강화 등 대책이 필요
- 담합이나 카르텔을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면 벌금 면제·감액을 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(Lenieoncy)제도를 활용하면 히타치오토모티브스나 후지코시와 같이 행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하고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
- 한편, 중국의 독금법 운용은 국제 룰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성 있는 경쟁 환경으로 개선되어 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

<참고자료>

산케이신문(2008.8.4, 2014.8.16/22), 닛케이신문(2014.8.14/20/21/27, 9.12), 아사히신문(2014.8.18), 마이니치신문(2014.8.21), 주간 동양경제(2014.9.6/20), 다이아몬드 온라인(2014.8.25)